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창조와 언약의 구속사 관점에서 본 성령의 위치와 역할

이재현*

1. 들어가며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찬송가 1장은 성령을 미쁘히 찬양받을 분으로 소개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교회와 성도의 신앙에서 성령은 단순히 능력과 관련해 개인의 평안 혹은 기적의 통로로 더 많이 인식되는 듯하다. 그런 이해 자체가 잘못된 아니지만, 전체 그림 없이 부분 현상에 집중하는 것은 문제를 만들 수 있다. 마치 구원에 대한 큰 그림이 없기에 신자 됨과 이후 삶을 단절시키는 우를 범하듯, 성령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성령의 위치와 역할을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 속에 자리매김하지 않으면, 부분을 절대시하거나 주변적인 것을 중심인양 추구할 수 있다. 실제로 이천 년 전 고린도 교회가 그랬고, 지금 교회에서도 동일한 어리석음이 보인다.

그렇다면, 구원의 큰 그림은 무엇이고, 성령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한 예수의 사역이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관련 있다. 대답은 그의 첫 선포에서 짐작할 수 있다. 광야 시험 이후, 예수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에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선포한다(마 4:17; 막 1:15). 이후 진행될 모든 사역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 있다는 의미다.

* 한동대학교 조교수/교목

따라서 성령 이해를 위해 구원의 그림 속에 위치시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 안에서 인식함을 뜻한다. 이에 본 논문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 속에서 성령의 위치와 역할을 살펴봄으로 일관성 있는 이해를 제시하려 한다.

실제 논문 진행에 두 가지 어려움이 있다. 첫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다. 이 주제는 논문 범위를 넘어 책 분량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세세한 모습보다는 기존 이해의 약점을 지적하고 하나님 나라의 중요 요소들을 재고찰하여 성령과의 관계성을 살필 것이다. 둘째는 성령에 대한 방대한 자료다. 각 용례와 구절에 대한 자세한 석의 역시 논문 수준을 크게 벗어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요한 예를 중심으로 마치 숲의 모습을 보여주듯 전체 흐름에 집중할 것이다.

2. 하나님의 나라 개념 재고찰: 하나님의 통치인가 통치 영역인가?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칭하는 단어는 ‘바실레이아’(βασιλεία)다. 비록, 신약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논의가 진행되었지만,¹⁾ 이 단어 자체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역동적 통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²⁾ 그러나 칠십인역 ‘바실레이아’와 상응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멜렉’(מֶלֶךְ), ‘마물라카’(מַמְלָכָה), ‘말쿠트’(מַלְכוּת), ‘멜루카’(מְלֻכָּה) 등이 있는데, 다스림뿐 아니라 영토를 가진 나라를 뜻하거나 때로 왕(단 11:5)을 지칭하기도 한다.³⁾ 이런 용법은 ‘바실레이아’에 대한 히브리 성경의 예를

1) 그린(J. B. Green)은 19세기 리츨(A. Ritschl)과 그의 사위 바이스(J. Weiss)로 촉발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현대 연구를 세 가지 영역으로 분류한다: (1) 하나님 나라의 시간성, (2) 하나님 나라의 선포 방법과 관련한 제 2 성전기 이스라엘 삶의 연결성, (3) 하나님 나라의 정치성. J. B. Green, “Kingdom of God/Heaven,” *Dictionary of Jesus and the Gospels*, eds. J. B. Green, et al.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13), 469-70.

2) G. R. Beasley-Murray, *Jesus and the Kingdom of God* (Eerdmans, 1986), 74; 양용의,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2005), 22.

3) 각 단어의 용법은 윌리엄 L. 할러데이, 『구약성경의 간추린 히브리어, 아람어 사전』 (서울:

통치로만 한정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헬라어를 사용한 신약은 어떻게? 히브리어와 달리 한 단어가 일관성 있게 사용되었지만, 바른 이해를 위해 여러 용법과 그와 관련한 요소들을 더 살펴보아야 한다.

신약 용례를 통한 이해는 명사 ‘바실레이아’가 사용된 문장 속 여러 요소를 같이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는 함께 사용된 동사와 주어나 목적어를 통한 등장인물이나 부대 상황 정보가 포함된다. 먼저, ‘바실레이아’와 함께 사용된 동사는 이동에 대한 것이 많다.⁴⁾ 주목할 것은 모든 표현이 두 가치를 전제한다는 점이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 외에 다른 ‘곳’의 존재다. 이동 동사는 한 곳에서 하나님 나라로, 혹은 하나님 나라에서 다른 곳으로의 옮김을 뜻하기에, 하나님 나라 묘사는 그것과 대척점을 이루는 다른 곳이 있음을 전제한다. 둘째는 둘 사이의 경계선이다. 안과 밖은 서로를 구별하는 경계선이 있다는 말이며, 이동은 그 경계선을 넘어 들어간다는 의미다. 비록 가시적인 것이 아니기에(요 3:3) 물리적 차원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런 동사들은 하나님 나라를 그것과 대척점을 가진 곳과의 경계를 가진 ‘영역’(realm)으로 보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또한,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 이런 표현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예수와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일차적으로 영역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말해준다.⁵⁾

솔로몬, 1994), 261-264; Philip J. Nel, “מַלְכוּת,” *NIDOTTE* 2:956-65을 보고, 구약의 하나님 나라는 Beasley-Murray, *Jesus and the Kingdom of God*, 3-38; M. J. Selman, “The Kingdom of God in the Old Testament,” *TynB* 40 (1989), 161-83을 보라.

- 4) ‘영기조’(ἐγγίζω, 가까이 오다): 마 3:2; 4:17; 막 1:15; 12:34; 눅 10:9, 11; 21:31; ‘에르코마이’(ἐρχομαι, 가다 혹은 오다): 마 6:10; 눅 11:2; 17: 20; 22:18; ‘에이스에르코마이’(εἰσερχομαι, 안으로 들어가다): 마 5:20; 7:21; 18:3; 19:24; 23:13; 막 9:47; 10:15, 23, 24, 25; 눅 19:17, 24, 25; 요 3;; ‘메티스테미’(μεθίστημι, 옮기다): 골 1:13; ‘에크발로’(ἐκβάλλω, 밖으로 내쫓다): 마 8:12; ‘프타노’(φθάνω, 임하다): 마 12:28 등이 있으며, 전치사(‘엔’[ἐν, 안에]이나 ‘에이스’[εἰς, 밖으로])가 함께하기도 한다.

- 5) J. B. Green, “Kingdom of God/Heaven,” 468. 흥미로운 것은 *Dictionary of Jesus and the Gospels* 1992년 1판에서 카라구니스(C. C. Caragounis, “Kingdom of God/Kingdom of Heaven,” *Dictionary of Jesus and the Gospels*, eds. J. B. Green et.al. (InterVarsity Press, 1992), 417-30)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동사를 시간성에만 집중해 설명하지만, 그린은 언어학 고찰을 통해 그 안에 담긴 공간성이 있음을 지적한다. 약

또 다른 관찰점은 ‘바실레이아’와 함께 언급된 등장인물이다. 두 그룹이 있다. 첫째는 통치권과 관련된 존재들이다. 이 역시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신적 존재다. 성경은 하나님을 왕이나 통치권자로 자주 언급한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8:23은 하나님 나라(천국)를 자기 종들과 결산하려는 왕으로, 마태복음 22:2는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 잔치를 베푼 왕으로 비유한다. 하나님=왕=천국(나라)의 개념이다. 성경은 메시아 예수도 왕권을 가진 자로 말한다. 마태복음 13:24에서 예수는 자기 밭(세상)에 사람이란 씨를 뿌린 자로 비유함으로 자신을 세상의 주인으로 묘사한다(참고, 마 16:28; 눅 1:33; 22:29, 30; 23:42; 요 18:36; 골 1:13; 딤후 4:1; 히 1:8). 흥미로운 것은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에서 예수가 변화산에서 보일 영광을 마가와 누가는 하나님 나라(막 9:1; 눅 9:27)로 말하고 마태는 예수의 나라로 표현한다(마 16:28). 예수가 정확히 어떻게 말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복음서 기자들은 하나님과 예수 모두를 왕으로 이해했음은 분명하다.⁶⁾ 이 개념은 성경 다른 곳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엡 5:5; 계 11:15).

통치권과 관련한 또 다른 존재는 사탄이다. 광야 시험 사건에서 사탄은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자기 것으로 말한다(마 4:8-9; 눅 4:6). 자기를 세상에 대한 또 다른 통치자로 칭한 것이다. 에베소서 2:2는 사탄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말하고,⁷⁾ 계시록은 그의 영향 아래 있는 것을 “짐승의 나라”(계 16:10; 17:12, 17, 18)나 “세상 나라”(계 11:15)로 표현한다. 물리적 영역이라기보다 하나님 통치권을 거절하는 영역, 곧 반역의 영역 혹은 나라로 보는 것이 좋다.⁸⁾ 이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는 그분 통치권을 거절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또 다른 통치자가 세상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음을 뜻한다.

20년 사이에 연구 초점에 이동이 있음을 보여준다.

6) D. A. Carson, “Matthew,”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Vol. 9, eds. T. Longman and D. E. Garland (Grand Rapids: Zondervan, 2010), 432.

7) 아놀드는 “공중”을 통치자의 영향력이 미치는 공간으로 이해한다. C. E. Arnold, *Ephesians*, ZECNT (Grand Rapids: Zondervan, 2010), 131.

8) S. S. Smalley, *The Revelation to John: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of the Apocalypse*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05), 406

하나님 나라와 관련한 또 다른 등장인물은 사람, 곧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다. 많은 경우 이동 동사와 함께 묘사되는데, 특별히 ‘들어가다’ 혹은 ‘이동하다’ + ‘안으로’가 대표적이다. 이런 표현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밖에 있음을 전제하며, 그 안으로 들어가는 긍정 상태와 그렇지 않은 상태로 구분한다. 들어가는 것은 예수 사역에 대해 회개와 믿음의 반응으로 이루어지고, 때로 하나님 나라를 받거나 소유하는 것(마 5:10; 19:14; 21:43; 25:34; 막 10:14; 눅 6:20; 12:32; 18:16; 22:29; 히 12:28; 약 2:5) 혹은 상속(막 13:38, 41; 참고, 계 1:6; 5:10)으로 묘사된다. 하나님/예수와 특별한 관계를 가진 상태를 뜻하며, 성경 여러 곳에서 백성이나 자녀로 표현한다. 반면, 들어가지 못한 것은 종종 심판과 연결해 제시된다(마 8:12; 22:13; 25:30; 참고, 계 20:15).

‘바실레이아’와 관련한 또 다른 관찰점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대 설명이다. 주목할 것은 시간에 대한 표현이다. 예수는 마가복음 1:15에서 ‘엥기조(가까이 오다)’ 동사의 완료형과 “때가 찼다” 표현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 ‘엥기조’는 시간(마 21:34)과 공간(막 14:42)에 대해 쓸 수 있는데,⁹⁾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가 없던 시, 공간을 전제로 예수의 사역을 통해 ‘이제 여기에’(here and now) 존재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예수는 “때가 찼다” 표현으로 하나님 나라가 부재한 과거와 반대되는 현재 상황을 분명히 한다. 이 구절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를 중심으로 과거 하나님 나라가 없던 때에서 현재 실존하기 시작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마 11:12). 하나님 나라의 시간성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성경은 예수를 통해 회복하기 시작한 하나님 나라의 현재(마 12:28; 눅 16:16; 17:20-21; 롬 14:17; 고전 4:10; 히 12:28)가 확장을 거쳐(막 4:26-32; 마 13:31-33; 눅 13:18-21) 장차 온전히 완성되는 미래(마 13:24-30; 47-49; 눅 13:28-29; 22:16, 18; 고전 15:24, 50; 갈 5:21)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이상의 관찰을 종합하면 ‘바실레이아’는 (1) 영역을 기본으로 (2) 그 안에

9) W. Bauer,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3rd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270.

왕과 통치권의 요소, 그리고 (3) 그 통치 받는 백성의 요소가 담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요소들을 하나님의 창조와 연결하면, 하나님의 나라란 “창조주 하나님이 왕이 되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포함해 그가 만든 모든 피조 세계를 영토 삼고 그가 지은 인간을 백성 삼아 창조주로서의 다스림과 관리, 보호하는 영역”으로 이해할 수 있다.¹⁰⁾ 신약은 이 개념에 하나님께 반역하는 세상 나라, 곧 반역의 나라를 전제한다. 따라서 신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란 반역의 나라(세상)와 분명한 경계선을 가진 하나님/예수가 왕으로 다스리는 영역이며, 예수의 사역을 통해 반역의 나라에서 이동한 사람들이 백성/자녀로서 하나님/예수와의 관계를 누리는 영역으로 말할 수 있다.

3.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1: 구약의 증거들

하나님 나라를 통치권과 통치 영역과 통치 백성 요소를 가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성령의 관계성도 그 세 요소와 연결 지어 생각할 수 있다. 이제 각 요소와 관련한 성령의 역할을 반역의 나라가 없었던 것에서 시작해 반역의 나라가 생긴 이후와 그에 대한 회복 차원에서 살펴볼 것이다. 먼저 다룰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

3.1. 하나님 나라 통치권과 성령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 나라는 창조에서 시작한다(창 1-2장). 하나님은 창조주이기에 왕이고, 그 왕으로서의 다스림이 하나님 나라 통치권의 핵심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연결되어 있다. 본격적 창조 과정이 시작하기 전, 땅은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을 때 하나님 영이 수면 위에

10) 이재현, 『구원: 삼위 하나님의 역작』 (용인: 킹덤북스, 2018), 33.

운행했다(창 1:2). 영으로 번역한 ‘루아흐’(רוּחַ)가 바람이나 숨의 용법도 있기¹¹⁾ 이 부분 이해에 대한 논쟁이 있다. 어떤 학자는 이 표현을 끔찍한 폭풍, 곧 하나님과 무관한 혼돈 상황으로 본다.¹²⁾ 그러나 유대인이 하나님과 ‘루아흐’가 함께 한 경우를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으로 이해했을 리 없고, 성경의 다른 모든 용례에서 ‘하나님 + 루아흐’는 하나님께 기인한 바람이나 숨, 영을 의미하기에 창세기 1:2도 그렇게 보아야 한다. 문제는 ‘루아흐’의 번역이다. 영과 바람과 숨이 다 가능하기에 주석이나 성경 역본마다 차이가 있다. 그러나 번역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 셋이 개념상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것일 수 있다.¹³⁾ 하나님의 일하심은 보이지 않기에 물리적 방법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비슷한 것은 바람이나 숨이다. 창조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서, 보이지 않지만 생명을 주거나 만물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도 마치 바람이나 숨처럼 보이지 않지만, 창조주로부터 나와 만물을 유지하고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바람이나 숨 자체가 하나님 영이라는 말은 아니다. 단지,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에 그 존재와 활동을 바람이나 숨의 뜻을 가진 영으로 표현한 것뿐이다. 따라서 어떤 번역을 하든 그 역할 이해에는 큰 차이가 없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영이 창조 이전에 존재했고, 창조 과정에 역할을 했음을 말하려는 것이다.

창조 과정에 대한 하나님 영의 역할은 이후 창세기 1:3부터 나타나는 말씀과 관련 있다. 비록 창세기 1:2 외에는 성령의 언급이 없지만, 바람이나 숨과 말하는 것과의 관계성은 성령의 역할을 짐작케 한다. 사람이 숨을 쉬는

11) 구약의 성령에 대한 이해는 R. E. Averbeck, “Breath, Wind, Spirit and the Holy Spirit in the Old Testament” *Presence, Power and Promise: The Role of the Spirit of God in the Old Testament*, eds. D. G. Firth and P. D. Wegner (Downers Grove: InterVarsity, 2011), 25-37; M. V. van Pelt, W. C. Kaiser and D. I. Block, “רוּחַ,” *NIDOTTE* 3:1073-78을 보라.

12) G. von Rad, *Genesis: A Commentary*, OTL (Philadelphia: Westminster, 1972), 49-50.

13) Hubbard, Jr., “The Spirit and Creation,” 84-86; R. E. Averbeck, “Holy Spirit in the Hebrew Bible and Its Connections to the New Testament,” *Who’s Afraid of the Holy Spirit*, eds. M. J. Sawyer and D. B. Wallace (Dallas: Biblical Studies Press, 2005), 24-25.

것은 공기 흐름인 바람을 마시는 것이고, 말을 하는 것은 들이쉬는 숨을 내쉬며 공기의 흐름으로 소리를 내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사람이 공기를 호흡해 소리를 내듯, 하나님이 영을 들이쉬어 내뿜음으로 소리를 낸 것처럼 묘사한 것이다. 하나님이 숨을 쉰다는 말이 아니다. 마치 사람이 말하는 과정처럼 하나님이 영을 통해 말씀으로 창조했음을 말하려는 것이다.¹⁴⁾ 시편 33:6은 이런 이해를 잘 보여준다. “여호와와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사를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나님의 창조 과정 묘사인데, 주목할 것은 “여호와와 말씀”과 “그의 입 기운(‘루아흐’)”이 짝을 이룬다는 점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영이다. 따라서, 말씀으로 인한 창세기 1장의 창조는 그분의 영을 통한 창조이기도 하다(참고, 시 104:30; 147:18; 욥 26:13; 사 40:13).¹⁵⁾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바람/숨인 성령은 창조 과정에 함께했고, 창조 과정을 이루는 통로였다. 창조를 통해 피조물의 주인이자 왕인 하나님의 통치권이 세워졌다는 점에서 성령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3.2. 하나님 나라 통치 영역과 성령

성령은 통치 영역 요소와도 관련 있다. 성령이 창조 과정의 능력이자 통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피조 세계 만들어 통치 영역으로 삼았다면, 그 성령을 통한 통치 영역이기도 하다. 이렇게 성령은 하나님과 피조물을 연결하는 존재다. 시편 139:7-10은 이런 이해를 잘 보여준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어디든 계시고 그분 통치 영역의 무한함을 하나님을 떠나 다른 곳으로 피할 수 없는 것으로 표현한다. 하늘이나 땅속 스올도 하나님의 창조

14) W. Hildebrandt, *An Old Testament Theology of the Spirit of God* (Peabody: Hendrickson, 1995), 42.

15) Walton, “The Ancient Near Eastern Background,” 42-43; Hubbard, Jr., “The Spirit and Creation,” 86-88.

영역 속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 무한한 하나님 통치 영역에 “주의 영”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한다. 하나님의 임재가 곧 성령의 임재라는 말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성령의 통치 영역’ 이해가 가능하다.

3.3. 하나님 나라 백성과 성령

성령은 하나님 나라 백성과도 연결된다. 시작은 사람의 창조 과정이다. 이 과정은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는 것과 다르다. 창세기 2:7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네사마’[נֶפֶשׁ])를 넣어 살아 있는 존재가 되게 했다고 한다. ‘루아흐’와 다른 표현이나 그 의미는 다르지 않다. 욥기 27:3은 사람을 살아 있게 하는 호흡에 대해 “나의 호흡”(‘네사마’)과 “하나님의 숨결”(‘루아흐’)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욥기 37:10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바람을 ‘네사마’로 말하기 때문이다(참고, 삼하 22:16; 욥 32:8; 사 42:5). 따라서 창세기 2:7은 하나님의 바람/숨이 흙으로 된 사람(물질)의 코로 들어가 숨을 쉬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의미다. 일차적으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숨이 들어와 물질로 구성된 사람이 비물질 속성의 하나님과 연결성을 갖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물론 하나님의 영은 모든 생명체에게 호흡을 주어 살게 했지만(시 104:29-30), 사람의 경우는 특별한 방법으로 사람의 존재와 생명과 연결된 것이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바람/숨은 그분의 존재를 드러내는 ‘영(Spirit)’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 교감하고 관계 맺을 수 있는 ‘영(spirit)’이다.¹⁶⁾

성령과 하나님 나라 백성과의 연결은 창조 이후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있는 삶에서도 계속된다. 성경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언약(covenant)으로 표현한다. 언약은 단순히 약속(promise)이 아니라, 두 당사자가 계약을 통해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 관계의

16) Hubbard, Jr., “The Spirit and Creation,” 86.

핵심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로 표현된다(출 6:7; 램 31:33; 히 8:10; 계 21:3 등). 이 관계에는 서로에 대한 의무가 있는데,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사랑하고 그 관계를 신실하게 유지해야 하고 사람은 율법으로 계시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의무를 지키며 관계와 정체성에 부합된 상태를 언약 관계의 의로움(‘체다카’[חֲסִידוּת])이라고 한다. 우리말로는 ‘~다움’으로 말할 수 있다(예, 시 25:10[하나님다움], 신 6:25[언약 백성다움]).¹⁷⁾

하나님 백성에 대한 성령의 역할은 하나님의 의로움과 관련 있다. 먼저, 성령은 언약 백성 만드는 과정에 등장한다. 출애굽기 14:21은 하나님이 큰 동풍(‘루아흐’)으로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했다고 한다. 하나님이 바람을 사용한 것인데, 이 일을 경험한 미리암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홍해 물을 가르 그 바람을 하나님 콧구멍의 ‘루아흐’로 묘사한다(출 15:8). 홍해의 구원 사건을 하나님의 바람/숨, 곧 그분 영의 능력으로 이해한 것이다. 이 사건은 이집트를 향한 열 가지 재앙과 함께 시나산에서 자신과 언약을 맺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것이다. 그렇기에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이 일했다는 것은 언약 백성을 만드는 시작 단계에서 성령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뜻이다. 즉, 성령은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능력이다.

성령은 하나님이 출애굽 백성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등장한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언약 백성과 함께했고, 지도자들에게 성령을 줌으로 자기 백성을 가르치고 인도했다. 출애굽기에는 모세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말이 없지만,¹⁸⁾ 민수기 11:25는 칠십 장로에게 임한 성령을 모세에게 임한

17) 언약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이재현, 『구원』, 48-69를 보고, 자세한 설명은 W. Eichrodt, *The Old Testament Theology*, Vol. 1, OTL (Philadelphia: Westminster, 1967); W. J. Dumbrell, *Covenant and Creation* (Crownhill: Paternoster, 2013); P. J. Gentry and S. J. Wellum, *Kingdom through Covenant: A Biblical-Theological Understanding of the Covenants*, 2nd ed. (Wheaton: Crossway, 2018); D. I. Block, *Covenant: The Framework of God's Grand Plan of Redemption*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21)을 보라.

18) 출애굽기는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가 임했다고 말한다(출 28:3; 31:3; 35:21).

것으로 말한다. 이미 그가 성령을 갖고 있었다는 말이다. 또한, 이사야 63:11-14과 느헤미야 9:20은 출애굽 사건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과 함께해 그들을 인도했다고 말한다. 성령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해서 직접 인도한 것이 아니다. 일차적으로 지도자 모세에게 임했고, 그 모세의 영을 함께 받은 다른 지도자들을 통해 인도했다는 뜻이다. 이렇듯, 성령은 언약 백성의 구원과 인도 과정에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과 사랑을 드러내는 통로다.

성령의 이런 역할은 출애굽 이후 시대에도 계속된다. 특별히 지도자와 선지자를 통해 언약 백성을 대하는 형태로 나타난다.¹⁹⁾ 지도자의 경우는 여호수아(민 27:18)와 사사들(웃니엘[삿 3:10], 기드온[삿 6:34], 압다[삿 11:29], 삼손[삿 13:25; 14:6, 19; 15:14])과 사울(삼상 10:6-11:6)이나 다윗(삼상 16:13) 같은 왕에게 임한 것이다. 성령은 대부분 특별한 일을 위해 잠시 그들과 함께했지만, 삼손과 다윗처럼 지속적 임재 경우도 있다. 이들은 언약 백성을 구원하거나 인도하고 다스리는 역할이었는데, 모두 하나님이 자기 언약 백성을 대하시는 사랑과 신실함을 드러내는 통로였다.²⁰⁾ 한편, 언약 백성을 향한 성령의 역할은 선지자를 통해서도 보여진다. 선지자들은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이나 죄에 대한 경고와 심판을 전했는데,²¹⁾ 그들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을 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충실히 반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선지자들의 이런 일은 철저하게 성령의 임재를 통해 이루어졌다.

결론적으로 성령은 사람을 창조해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고, 이후 언약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통치권과 통치 영역

19) 출애굽 이전에 지도력과 성령의 연결은 요셉의 경우에 처음 등장한다(창 41:38).

20) 지도자에 임한 성령에 대해서는 D. G. Firth, "The Presence and Leadership: Testimony, Empowerment and Purpose," *Presence, Power and Promise*, 29-80을 보라.

21) 블락(D. I. Block)은 선지서의 성령을 아홉 가지로 정리한다.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뜻/의지,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 하나님 일을 수행하는 통로, 영감의 통로, 능력의 통로, 심판의 통로, 소생시키는 통로, 언약 관계의 보증. D. I. Block, "The View from the Top: The Holy Spirit in the Prophets," *Presence, Power and Promise*, 175-207.

요소를 함께 고려하면, 성령은 하나님 나라 모든 요소에 걸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었으며,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통치와 백성과의 관계 유지 등 모든 차원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

4. 반역의 나라와 성령: 구약의 증거들

4.1. 반역의 나라의 본질

창조 과정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첫 모습은 창조주의 통치 영역 안에 왕과 백성의 언약 관계가 긍정적으로 존재했었다. 그러나 창조 후 오래 지나지 않아 인간 역사에 괴이한 것이 나타났다. 첫 사람들로 시작해 지금까지 존재하는 반역의 영역이다. 창세기 3:1-6은 그 영역의 시작을 말해준다.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남편에게도 주어져 함께 먹은 이야기다.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한다.

첫째는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동기다. 여자가 열매를 먹은 것은 그것을 금지한 하나님 명령(창 2:17)에 대한 거역이다. 심각한 일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그 행동의 동기다. 여자가 처음부터 불순종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처음에는 그 열매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거짓말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된다는 뱀의 말(창 3:4-5)에 여자의 마음이 동했다. 하나님 대신 자기를 선악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면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판단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유혹이었는데,²²⁾ 여자가 그 말을 받아들였고, 남편도 동의해서 여자가 준 열매를 먹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분의 통치권을

22) N. M. Sarna, *Genesis*, JPSTC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89), 25. 여기서 “하나님”에 해당하는 단어가 복수형이라 “하나님”을 지칭하는지, 신적 존재들을 지칭하는지 애매함이 있지만, 뱀이 하나님이 여자에게 허락한 위치보다 더 뛰어난 지위를 유혹한 것은 분명하다. V. P. Hamilton, *The Book of Genesis Chapter 1-17*, NICOT (Eerdmans, 1990), 190.

거절하고 자신을 왕으로 하는 또 다른 영역을 만들려는 의도다. 이것이 반역의 나라의 본질이다.

둘째는 사람이 뱀의 말을 따른 것이다. 이 뱀은 사탄과 관련 있기에(계 12:9; 20:2), 뱀의 말을 따른 것은 사탄의 말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왕, 창조주 통치에 대한 거절이다. 이 일로 사람은 하나님 대신 사탄의 통치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왕이 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지위를 잃고 사탄을 따르는 반역의 백성으로 전락한 아이러니다. 결국, 창세기 3장은 하나님 나라의 세 요소와 정반대 모습이 만들어진 사건이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사람과 사탄을 왕처럼 여긴 것이 생겼고, 하나님 통치 영역 대신 반역의 영역이 생겼으며, 사람은 사탄의 백성으로 전락했다. 창조 과정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요소를 뒤집는 반역이다.

창세기 3장은 반역의 시작이나, 반역은 그때로 한정된 것이 아니다. 이후 사람은 창조주 대신 자기를 왕으로 여기며 살라는 사탄의 거짓말을 계속 따르고 있다(엡 2:1-3). 그 결과, 창세기 3장 이후 사람의 역사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역사가 되었고,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와 반역의 나라가 공존하는 장(場)이 되었다.

4.2. 하나님의 심판과 성령

아담과 하와에서 비롯한 반역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은 그에 대한 평가와 심판을 하신다. 이 심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요소에서 시작하지만, 그 결과는 모든 피조 세계에 미친다. 그분의 심판이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진행되는데, 그 과정 모두 성령의 역할이 있다.

첫째는 창조 과정을 되돌리는 모습의 심판이다. 사람의 창조는 물질로 구성된 형태 안에 하나님이 숨을 넣어 살아 있는 존재로 만든 것이었다(창

2:7).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께 반역함으로써 창조와 정반대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살아 있는 존재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이다(창 3:19). 성경은 이 과정의 핵심을 하나님이 사람 코에서 호흡(‘루아흐’)을 거두어 가는 것으로 묘사한다(전 12:7; 욥 27:3). 하나님의 바람/숨/영이 들어오면 살지만, 그것이 떠나면 죽는다. 이 과정은 단순히 물질로의 환원 이상의 의미가 있다. 하나님 숨이 들어와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과 반대의 모습,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음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 영이 다시 들어오지 않는 한, 사람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의 결과이자 실재의 증거인 셈이다.

죽음과 영의 관계는 사람에게 국한되지 않는다. 바람/숨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모든 존재가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좋은 예는 홍수 심판이다. 아담 이후 거의 모든 이가 창조주를 반역하자 그분은 사람에게서 자신의 영을 회수하고(창 6:3) 홍수로 모든 생명을 심판했다.²³⁾ 방주에 들어간 존재 외에 땅의 모든 육체가 죽었는데, 창세기 7:22는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네사마’)의 숨(‘루아흐’)이 있는 것이 다 죽었다고 말한다. 비록 사람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차원은 아니지만, 생명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성령의 일하심이 없는 것을 죽음으로 이해한 것은 동일하다. 사람의 반역으로 인한 심판이자 창조 과정을 되돌린 것인데, 성령은 그 과정 중심에 있다.

둘째는 언약 관계에 근거한 심판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이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실제 역사이나, 다른 민족에게는 창조주를 거절한 모든 이의 운명을 보여주는 예이다. 언약 관계에 근거한 하나님의 심판과 성령의 관련성은 이스라엘의 초대 두 왕의 경우에서 볼 수 있다. 사울이 왕으로 기름부음 받는 과정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지만(삼상 10:6-11:6), 불순종에 대한 심판으로 성령이

23)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서 떠난 것과 홍수로 창조 질서를 뒤집은 것과 연결하기도 한다. S. Fockner, “Re-opening the Discussion: Another Contextual Look at the Sons of God,” *JOT* 32 (2008), 435-56; G. J. Wenham, *Genesis 1-15*, WBC (Waco: Word, 1987), 136-38.

떠났다(삼상 16:14).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과 왕으로서 자격 상실의 증거다. 비슷한 경우가 다윗에게도 있을 뻔했다. 밋세바 사건 이후 다윗은 나단의 책망을 받고 회개하는 과정에 시편 51을 썼다. 그는 은혜를 구하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간구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성령의 연결을 알았기에 성령이 떠나는 심판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한 것이다. 아마도 사울의 예를 알았기에 그렇게 간구했을지 모른다²⁴⁾ 이런 예들은 성령이 언약 관계의 보증이지만, 관계가 깨지면 성령이 떠나가는 것을 하나님 심판의 한 모습이 이해했음을 보여준다. 이뿐 아니다. 이사야 4:4에서는 하나님이 언약 관계를 깬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심판한다고 말한다. 이 또한 성령과 하나님 심판과의 연관성을 말해준다(사 27:8; 30:28).

이상의 관찰에 의하면, 반역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성령과 관련 있다. 창조 과정에서 생명의 통로였던 숨/영을 거두어 가는 죽음의 심판이 있고, 언약 관계에 근거해 백성에게서 성령을 거두어 감으로 관계 단절을 드러낸다. 이런 과정은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그분의 존재를 잘 보여준다. 평가와 심판은 창조주로서 평가 권위를 보여주고(참고, 창 1:3), 언약 백성을 향한 심판은 그 관계를 신실하게 유지하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낸다. 언약 관계는 피, 곧 생명 걸고 서로에게 신실하기로 약속한 것이고, 그것을 어기면 상대방에게 죽임당할 수 있음을 맹세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언약을 어긴 사람들을 징계하는 것은 언약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충실함 표현이다.

4.3. 하나님 나라의 회복 약속과 성령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의 의로움은 반역에 대한 심판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 과정에서도 뚜렷이 나타난다. 이 과정은 하나님 나라 제반 요소에 대한 회복을 담고 있으며, 약속과 성취로 진행된다. 성령은 이 과정에서도 등장한다.

24) Hildebrant, *An Old Testament Theology of the Spirit of God*, 127.

여기서는 구약의 약속을 다루고, 성취는 아래 신약의 경우를 통해 다루겠다.

첫째, 하나님 나라 회복의 약속은 통치권 차원을 포함한다. 반역의 나라에 대해 왕으로서의 하나님이 자신의 통치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은 왕으로 올 메시아 약속(겔 34:23-24)인데,²⁵⁾ 성령과 메시아의 연결은 이사야 11장에 잘 나타난다. 다윗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에게 성령이 함께할 것이다(사 11:2). 그 영을 통해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데, 모두 바른 통치를 위해 필요한 덕목이다. 세상 군주와 다른,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데 필요한 것을 성령이 제공한다는 의미다. 성령과 함께 하는 메시아의 통치는 세상에 정의와 공평이 흐르게 할 뿐 아니라(사 11:3-4), 망가진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까지 이른다(사 11:5-9). 이사야 61:1-3도 하나님의 통치권 회복 약속에 성령이 등장한다. 장차 올 지는 기름부음 받을 것이다. 메시아라는 말이다. 그가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할 것이다. 얼핏, 선지자의 사역을 말하는 듯하지만, 단순한 선지자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석방하는 것은 왕의 일이기 때문이다. 선지자뿐 아니라 왕으로서 망가진 것에 대한 통치 회복의 내용이다.²⁶⁾ 주목할 점은 이 모든 것이 주의 영의 임재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사 61:1). 이런 예들은 반역의 세상 속에 창조주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보이겠다는 것으로, 통치권이 담긴 하나님 나라 회복의 약속들이다.

둘째, 회복의 약속은 통치 영역 요소를 담고 있다. 여기에는 언약 백성 회복 외에 두 가지 차원이 더 있다. 하나는 세상 모든 이에게 창조주의 통치를 드러내는 것이다. 언약 백성의 지경을 넓히는 것인데, 성령의 임재를 가진 메시아 사역의 결과다. 이사야 42:4는 메시아를 통해 세상에 정의를 세우고 모든 섬이 그 교훈을 기대한다고 말하고, 6절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에게도 빛이 되게 한다고 말한다. 이사야 11:9는 메시아 사역으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한다(참고,

25) 박영복, “목자 되신 하나님의 백성,” 『Canon&Culture』 9 (2015), 163-90.

26) Block, “The View from the Top,” 189.

합 2:14). 반역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미쳐지게 하겠다는 약속이다. 또 다른 차원은 모든 피조 세계의 회복이다. 앞서 본 이사야 11장에는 성령과 함께 한 메시아의 사역으로 육식 동물과 초식 동물이 함께 살고, 해함과 상함이 없는 창조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는 약속이 있다. 단순히 아담의 범죄 이전 시점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없고 창조주의 뜻이 온전히 미쳐지는 새로운 질서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완전한 살림이다(사 65:17; 66:22).²⁷⁾ 당연히 이 과정에는 반역의 통치 영역에 대한 완전한 심판이 전제되어 있다(사 4:4).

셋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백성 요소도 담고 있다. 이 과정은 하나님 백성이 될 사람을 창조하는 것과 그들과 특별한 언약 관계를 맺는 것과 그에 대한 보증이 들어 있다. 사람의 반역으로 깨어진 관계를 되돌리는 것인데, 성령은 이 과정에도 함께 한다.

먼저, 하나님 백성의 창조와 관련한 성령의 역할은 에스겔 37:1-14에 잘 나타나 있다. 하나님은 환상 중에 마른 뼈 가득한 골짜기로 선지자를 데려가 뼈들에게 대언하라고 명한다. 선지자가 그 명령을 따라 대언하자, 뼈들이 연결되고 살가죽이 덮인다. 마지막으로 바람/숨(‘루아흐’)을 불어와 살아나게 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자, 그들이 살아나 큰 군대가 되었다는 이야기다. 이 과정은 창세기 2:7을 연상케 한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살아 있는 존재가 되게 했지만, 죄로 인해 하나님의 숨이 떠나고 마른 뼈가 되었다. 에스겔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숨이 들어가 다시 살아나는 새 창조의 약속이다(겔 37:14). 이런 면에서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 백성의 회복은 새로운 창조이고, 그 백성은 새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핵심은 하나님의 바람/숨/영이 사람에게 임해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새 창조된 백성은 그분과의 관계 역시 새롭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31:31-34가 잘 보여준다. 하나님은 미래에 이스라엘과 유다 집과 맺을 새 언약을 약속하고, 왜 그것이 필요한지를 부연한다. 마치 부부 관계치

27) G. V. Smith, *Isaiah 1-39*, NAC (Nashville: Broadman & Holman, 2007), 273.

림 출애굽 이후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지만, 백성들이 언약을 깨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해서 새로운 언약 관계를 허락하겠다고 한다. 이 관계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언약 관계의 핵심을 공유하지만, 죄 사함 과정과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그분 뜻을 지키게 하는 것이 다르다(렘 31:33). 예레미야는 이 과정에 성령의 역할을 언급하지 않지만, 같은 내용을 말하는 에스겔 36:27-28은 새 언약과 성령의 역할을 설명한다. 하나님이 백성을 회복하고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해서 새 영과 마음을 주어 부드럽게 하겠다고 한다. 안에서부터의 변화로 새 언약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것인데, 핵심은 “나(하나님)의 영”을 그들 속에 두어 그 변화를 만들겠다는 약속이다(겔 36:27).

새 언약은 성령과 관련해 여러 면에서 옛 언약과 다르다. ‘왕-백성’ 관계성과 율법을 통한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것은 같지만, 성령의 임재 모습이 다르다. 옛 언약에선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일회적 혹은 간헐적으로 임했지만, 새 언약에선 지속적 내주 약속이 있다(사 32:15-20; 44:2-3; 59:21; 겔 36:27; 37:14; 39:29). 또한, 옛 언약에서는 선지자나 왕 등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했지만, 새 언약에서는 남녀노소나 신분, 심지어 민족 구별 없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는 모든 이에게 임할 것을 약속한다(율 2:28-29). 이런 면에서 새 언약 백성의 가장 큰 특징은 성령의 임재와 내주다.

5.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2: 신약의 증거들

5.1. 하나님 나라 통치권과 성령

구약에서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메시아 예수의 사역으로 성취되기 시작한다.²⁸⁾ 성령은 이 과정에서 약속 성취의 동력이자 언약 백성의

증거 역할을 한다. 먼저, 살펴볼 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 요소와 성령이다. 시작은 요단강에서의 세례를 통한 성령의 임재다(마 3:16; 막 1:10; 눅 3:22; 요 1:33). 이후 예수는 나사렛 회당 설교에서 성령의 임재를 약속한 이사야 61:1-2가 자신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선포한다. 사실,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기에 원래부터 성령의 함께 했었지만(마 1:20; 눅 1:35), 요단강 사건은 메시아로서의 공적 사역을 위한 가시적 증거이자 확증이다.

통치권과 관련한 예수의 사역은 성부 하나님의 속성을 계시한 것이다. 요한복음 서론(요 1:1-18)은 이 모습을 잘 말해준다. 독생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드러내기 위함이다(요 1:14, 18). 은혜는 피조물과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태도, 곧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이고, 진리는 언약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함이다.²⁹⁾ 이것들은 창조와 언약 관계 차원에서 피조물과 백성을 대하는 하나님의 속성이며 통치 방식인데, 예수의 존재와 사역을 통해 세상에 온전히 드러났다는 말이다. 망가진 반역의 나라에 진정한 왕의 통치를 온전히 선포하고 계시한 것이다.

예수의 선포와 계시는 삼 년여의 공생애를 통해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나타났다(마 4:23; 9:35). 첫째는 선포다. 성령을 가진 선지자로서의 외침 사역이며, 그 내용은 하나님 나라다. 예수 스스로도 자신을 역사의 마지막에 올 선지자로 이해하기도 했다(마 13:57; 막 6:4; 눅 13:33; 요 4:44). 둘째는 가르침이다. 역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으로서 구약 내용이나 비유를 통해 사람들을 깨우치는 형태다. 성령의 지혜를 통한 사역이다. 셋째는 치유와 기적이다. 선포하고 가르친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 가운데 실제로 임했다는 증거다. 이 능력의 핵심 역시 성령이다(마 12:28; 눅 11:20).

하나님 나라 통치권과 관련한 예수 사역의 절정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28) 신약의 성령에 대한 자료도 방대하다. G. M. Burge, *The Anointed Community: The Holy Spirit in the Johannine Tradition* (Eerdmans, 1987); G. D. Fee, *God's Empowering Presence: The Holy Spirit in the Letters of Paul* (Hendrickson, 1994); C. S. Keener, *The Spirit in the Gospels and Acts* (Hendrickson, 1997); 이승현, 『성령』 (킹덤북스, 2012) 등을 참고하라.

29) D. A. Carso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PNTC (Eerdmans, 1990), 129.

십자가는 하나님 통치를 거절한 자들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핵심 과정으로서 죄 사함을 담고 있는 새 언약 약속의 성취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이 있어야만 의미가 있다.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헛된 죽음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 부활 사역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롬 1:4; 8:11). 이런 면에서 예수 메시아는 성령으로 태어나(눅 1:35) 성령으로 사역하고 성령으로 부활하여 승천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예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이 땅에 회복시킨 사건이다. 핵심은 반역의 나라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계시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성령은 예수 안에서 능력과 지혜와 생명의 원천으로 함께했다. 구약에서 말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의 성취다. 물론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다. 반역의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예수의 통치만 존재하게 되는 것은 미래 사건(마 6:10; 엡 1:10; 계시록 21-22장)이 나, 약속 성취가 시작했기에 그 완성을 기대할 수 있다.

5.2. 하나님 나라 통치 영역과 성령

하나님 나라 통치 통치권 회복은 통치 영역 회복과 연결된다. 반역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충돌을 전제로 예수 메시아가 반역의 나라에 들어와 통치 세력들을 없애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의 회복을 시작했다기 때문이다. 성령은 이 과정에도 함께 한다.

반역의 나라와 예수와의 첫 충돌은 광야 시험 사건이다(마 4:1-11; 막 1:12-13; 눅 4:1-13). 표면적으로 사탄이 예수에게 몇 가지를 제안한 것이지만, 이면에 중요한 요소가 있다. 그중 하나는 사역의 주도권이다. 만일 예수가 돌을 빵으로 만들었다면, 메시아의 첫 기적을 사탄의 말을 따라 행한 것이 된다. 사역 주도권을 하나님에게서 사탄에게 넘기는 일이다. 하나님 뜻을 수행할 메시아로서 절대로 따르면 안 된다. 또 다른 요소는 순종 대상이다.

순종은 외적 행동 표현 이전에 방향성의 문제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 대신 예수의 필요와 쉬운 길과 사탄 자신에게 순종하기를 요구했고, 예수는 한결같이 하나님께만 초점 맞춘다. 자신에게 집중한 창세기 3장의 첫 사람들과 다른 태도이며, 반역의 나라에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겠다는 뜻이다. 주목할 것은 이 사건이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인도함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예수는 사탄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다.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왔기 때문이다. 광야 시험은 사탄과의 첫 충돌이며, 그 충돌 모습은 이후 사역의 전체 방향과 결과를 결정한다. 예수는 보기 좋게 사탄의 유혹을 물리쳤다. 바로 이 첫 충돌이 성령의 인도를 통해 이루어졌기에 하나님 나라 회복 사역의 시작이 성령의 인도로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후 진행된 예수의 사역은 하나님 통치 영역을 회복하는 것이다.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친 것은 그 회복의 실제 증거다. 마태복음 12:27-29는 이 개념을 잘 보여준다. 예수가 귀신을 축출했음에도 종교 지도자들은 그의 메시아됨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썬 귀신을 통해 약한 귀신을 쫓아내는 마치 무당의 일로 폄하했다. 예수는 자신의 일을 성령이 일한 결과이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라고 말하고 비유를 하나 든다. 남의 집에 들어가 집 주인을 결박하고 물건을 훔치는 강도의 비유다. 여기서 집 주인은 사탄을, 강도는 예수를, 집 물건은 사람을 뜻한다. 반역의 나라에 들어와 성령을 통해 수괴인 사탄을 결박하고 그 밑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해방하는 것이 예수의 사역이라는 말이다.³⁰⁾ 나중에 베드로는 예수의 이런 사역을 성령과 능력으로 선한 일을 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준 것으로 묘사한다(행 10:38). 결국, 십자가와 부활을 포함한 예수의 모든 공적 사역의 또 다른 의미는 거짓으로 사람들을 노예 삼고 있는 사탄과 반역의 통치 영역을 깨고 사람들을 하나님 통치 영역으로 옮기는 것이다(골 1:13; 히 2:14; 요일 3:8 등).³¹⁾ 이 과정에 성령의 일하심이 있다.

30) G. R. Osborne, *Matthew*, ZECNT (Grand Rapids: Zondervan, 2010), 475.

31) 하나님 통치 영역과 반역의 통치 영역에 대한 로마서 정보에 대해서는 이재현, “바울 복음의 중심을 향하여,” 『Canon&Culture』 4 (2010), 195-204를 보라.

하나님의 통치권 요소와 마찬가지로 통치 영역도 현재 회복 과정이 진행 중이다. 완전한 회복은 예수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이다. 반역의 나라가 심판 받아 멸망하고(마 13:30, 40-43; 계 18-20장),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이 성취되어(계 20:11; 21:1) 하나님 통치 영역이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

5.3. 하나님 나라 백성과 성령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백성 요소도 포함한다. 처음 백성을 만든 것과 회복의 약속이 창조와 언약 관계 차원에서 설명되듯, 그에 대한 성취도 마찬가지다. 먼저, 창조와 관련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회복은 성령으로 인한 새 창조로 설명된다. 마른 뼈들이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되듯(겔 37장), 예수의 사역 결과로 성령을 통한 새로운 백성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성령은 하나님 심판 아래 있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도록 돕고(롬 8:1-2; 고전 12:1-3), 신자 안에 거한다(롬 8:14-16; 갈 4:6). 마치 창세기 2:7처럼 하나님의 영이 신자 안에 들어와 영적으로 살아 있는 존재, 곧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게 한 것이다. 이런 면에서 예수의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며(고후 5:17) 다시 태어난 자다(요 3:5-8; 벰전 1:3, 23; 딤후 3:5). 이 모든 과정은 생명을 주는 영인 메시아 예수(고전 15:45)가 자신의 영이자 하나님의 영을 신자에게 보냈기 때문이다(요 15:26; 롬 8:9). 이뿐 아니다. 신자 안에 있는 성령은 장차 완전한 변화, 곧 몸의 부활의 보증(고후 5:5)이자 변화의 능력이다(롬 8:11; 고후 3:18). 미래 어느 날 신자는 성령을 통해 새 창조의 완성, 곧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성령은 언약 관계의 회복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구약 약속에 의하면 성령은 새 언약의 증거이며, 백성들이 그 관계 안에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다. 이 약속은 예수를 통한 새 언약 성취 과정에서 실현되었다. 그는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새 언약과 연결한다(마 26:28; 막 14:24; 눅 22:20;

고전 11:25). 그의 피는 예레미야 31:34의 약속처럼 죄 용서를 통해 하나님과의 새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통로다(히 7:22; 10:19-20; 13:20). 이 관계는 ‘하나님-백성’뿐 아니라, 호세아 1:10의 약속처럼 ‘아버지-자녀’ 모습도 있다(요 1:12; 계 21:7 등). 이후 성령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임했다. 신자가 새 언약 관계 안에 있다는 증거이자(롬 8:14-16; 갈 4:6) 구약 약속의 성취다(사 32:15-20; 44:2-3; 59:21; 겔 36:27; 37:14; 39:29; 욥 2:28-29). 본격적 시작은 오순절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이다. 요엘서 약속처럼 신자에게 언약 백성의 증표가 임한 것이다.

새 언약의 보증인 성령은 새 언약 백성과 관련해 세 가지 역할을 한다. 첫째는 신자 개인에 대한 것으로서, 신자 개인이 하나님의 백성/자녀로서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잘 살아가도록 돕는다. 여기에는 하나님/예수가 신자 안에 거하고 신자도 그분 안에 거하는 상호 거함 관계를 유지하는 것(요일 3:24; 4:13)과 그 관계 안에서 인격적 열매를 맺어 그분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포함된다(롬 8:4; 갈 5:22-23). 이 과정의 핵심은 자기를 중심으로 한 사고와 가치 체계를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고, 그에 따라 삶의 방향을 그분께 고정하는 것이다. 아담이 하나님을 거절한 근원적 죄의 모습을 뒤집는 것이다. 성령의 생각을 따르는 변화이며(롬 8:5-8),³²⁾ 새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면화되어 그분의 뜻을 따르게 하겠다는 구약 약속의 성취다.

둘째는 언약 백성 공동체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은 옛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지도자나 선지자에게 성령을 주어 인도와 보호 또는 책망과 회복 등의 다스림을 제공했지만, 새 언약에서는 모든 신자에게 성령을 부어줌으로 모두가 언약 백성 공동체를 함께 섬기며 같이 만들어 가게 하신다(엡 2:19-22; 골 2:19).³³⁾ 사람이 모여 있는 공동체이기에 그중에 성령의 은사를 통해

32) J. H. Lee, *Paul's Gospel in Romans: A Discourse Analysis of Rom 1:16-8:39*, LBS 3 (Leiden: Brill Academic, 2010), 396.

33) 바울의 성령론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일치에 대해서는 Sang Mok Lee, "Paul's Pneumatology and the Unity of Christ's Body: Cosmological and Epistemological Aspects of the Spirit." 『Canon&Culture』 14 (2020), 201-34를 보라.

다스리는 목사와 감독 같은 지도자가 있어야 하지만(롬 12:8; 엡 4:11-12), 기본적으로 새 언약 공동체에서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그 자체로 귀천과 경중이 없다(롬 12:4-8; 고전 12:4-7). 오직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 주신 것이며,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최고의 은사다(고전 12:31-13:13). 또한, 백성 공동체의 지도력도 세상의 인식과 다르다. 세상은 다스리는 자가 위에 있지만, 새 언약 공동체에서는 섬기는 자가 위다(마 23:11; 막 10:43; 눅 22:26). 고린도전서 3:21-23은 그 모습을 잘 보여준다. 이 부분에서 바울은 교회의 위계질서 같은 것을 말하는데, 꼭대기에 하나님이 있고 그 밑에는 그리스도가, 그 밑에는 사역자 대신 ‘너희’로 말하는 성도가 있다. 사도를 포함한 사역자는 그 밑이다. 이렇듯 성령으로 인한 새 언약 공동체는 세상과 다른 질서를 갖고 있고, 서로 섬김으로 하나님 영이 거하는 성전(고전 3:10-17)과 집(딤후 3:15; 히 3:6; 뱀 2:5)으로 만들어져 간다. 성령은 이 일을 돕는다.

셋째는 반역의 세상과 관련한 언약 백성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다. 출애굽기 19:6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유 중 하나를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제사장은 예배와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자이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세상과 구별된 언약 백성의 삶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통로 삼기 위함이라는 말이다.³⁴⁾ 세상에 대한 언약 백성의 이런 역할은 새 언약에서도 동일하다(벰전 2:9-10). 새 언약 백성은 하나님 통치 영역으로 옮겨진 자이지만, 아직 세상에 발붙이고 살기에 세상의 영향력과 꺾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신자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제사장 역할 때문이다. 메시아 예수로 인한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알리고, 반역의 나라에 속한 자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예수와 연결시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성령은 세상이 주는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신자를 도울 뿐 아니라(행 4:8-12; 골 1:11), 능력과 지혜를 통해 예수에 대한 진리를 잘 증거하도록 돕는다(요 16:13; 행 1:8; 4:31; 롬 5:18-19; 고전 2:4; 히 2:4 등).

34) D. K. Stuart, *Exodus*, NAC (Nashville: Broadman & Holman, 2006), 423.

결론적으로 성령은 하나님 나라 백성과 관련한 모든 회복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람들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돕고, 그들에게 메시아 예수에 대한 진리의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 간섭한다. 새 창조의 과정이자, 거듭나게 하는 동력이다. 또한, 그 과정을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과 새 언약 관계를 맺게 된 개인과 공동체가 그 관계 안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한마디로 성령은 신자가 새 언약 관계 속에 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이자 실제 삶의 능력이다.

6. 나가며

지금까지 관찰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는 단순한 통치 행위 차원을 넘어, 그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과 그 안에 존재하는 백성 요소를 담은 포괄적 개념이다.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반역의 나라의 존재를 인식해야 한다. 아담의 반역 이후 시작된 망가진 세상의 실체이며, 메시아 예수를 통한 회복이 필요한 이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와 관련한 역사 흐름은 (1) 하나님 나라 시작(창 1-2장)-(2) 하나님 나라 속 반역의 나라(창 3장 이후)-(3) 예수를 통한 하나님 나라 회복의 시작-(4) 반역의 나라에 대한 완전한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 구조다. 이 과정은 크게 창조와 언약의 범주로 아우를 수 있다. 창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것의 시작이고, 하나님 통치권의 이유이자 기초다. 언약은 창조주와 창조된 사람과의 관계,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요소에 집중한다. 하나님 나라는 이 두 요소가 긍정적으로 함께 있는 것이고, 반역의 나라는 그에 대한 거절과 배반이다. 그렇기에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새 창조 과정이고 그로 인해 새 언약을 맺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성령은 이 모든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창조를 통한 시작 단계에서 하나님의 바람/숨/영으로서 말씀으로 인한 창조 과정의 통로이자 능력이며

지혜다. 옛 언약 관계에서 사람들에게 임하여 언약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와 돌봄, 심판과 회복의 일을 했다. 새 언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메시아 예수가 반역의 통치자에게 고통당하는 자들을 죄와 죽음에서 해방해 하나님 통치 영역으로 옮기고 새로운 관계를 얻게 하는 과정, 곧 새 창조와 거듭남의 과정에 성령이 관여한다. 또한, 새 언약 백성의 증표로서 성령은 신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살아가도록 돕고 장래 완전한 회복을 경험케 한다.

바른 이해는 바른 신앙을 낳는다. 성령은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힘이 아니라, 반역의 나라를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완성하는 커다란 구원 계획의 주인공 중 하나다. 신자와 교회는 이 관점에서 성령을 이해하고 의지해야 한다. 그렇기에 성령을 구하는 것은 반역의 나라에 대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가는 과정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자녀가 그분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과 도움을 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믿음과 삶의 통합이자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 백성/자녀로서 바른 삶의 통합이다.

<주요어>

하나님 나라, 성령, 창조와 언약, 통치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영역, 하나님 나라의 백성, 반역의 나라

<Keywords>

Kingdom of God, Holy Spirit, creation and covenant, rulership, realm of Kingdom of God, people of Kingdom of God, the rebellious kingdom

* 접수일 2023년 6월 26일, 수정일 2023년 8월 25일, 게재 확정일 2023년 9월 4일

참고문헌

- 할리데이, 윌리엄 L., 『구약성경의 간추린 히브리어, 아람어 사전』, 서울: 솔로몬, 1994.
- 박영복, “목자 되신 하나님의 백성,” 『Canon&Culture』 9 (2015), 163-90.
- 이승현, 『성령』, 용인: 킹덤북스, 2012.
- 양용의,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2005.
- 이재현, “바울 복음의 중심을 향하여,” 『Canon&Culture』 4 (2010), 195-204.
- _____, 『구원: 삼위 하나님의 역작』, 용인: 킹덤북스, 2018.
- Arnold, Clinton E., *Ephesians*, ZECNT, Grand Rapids: Zondervan, 2010.
- Averbeck, Richard E., “Holy Spirit in the Hebrew Bible and Its Connections to the New Testament,” *Who’s Afraid of the Holy Spirit*, eds. M. J. Sawyer and D. B. Wallace, Dallas: Biblical Studies Press, 2005, 15-36.
- Averbeck, Richard E., “Breath, Wind, Spirit and the Holy Spirit in the Old Testament,” *Presence, Power and Promise: The Role of the Spirit of God in the Old Testament*, eds. David G. Firth and Paul D. Wegner, Downers Grove: InterVarsity, 2011, 25-37.
- Bauer, W.,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Trans. F. W. Danker, W. F. Arndt, and F. W. Gingrich, 3rd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 Beasley-Murray, G. R., *Jesus and the Kingdom of God*, Grand Rapids: Eerdmans, 1986.
- Block, Daniel I., “The View from the Top: The Holy Spirit in the Prophets,” *Presence, Power and Promise: The Role of the Spirit of God in the Old Testament*, eds. David G. Firth and Paul D. Wegner, Downers Grove: InterVarsity, 2011, 175-207.
- Block, Daniel I., *Covenant: The Framework of God’s Grand Plan of Redemption*,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21.
- Burge, Gary M., *The Anointed Community: The Holy Spirit in the Johannine Tradition*, Grand Rapids: Eerdmans, 1987.

- Caragounis, C. C., "Kingdom of God/Heaven," *Dictionary of Jesus and the Gospels*, eds. J. B. Green, J. K. Brown, and Nicholas Perrin,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92, 417-30.
- Carson, D. A.,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PNTC, Grand Rapids: Eerdmans, 1990.
- Carson, D. A. "Matthew,"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Vol. 9, eds. T. Longman and D. E. Garland, Grand Rapids: Zondervan, 2010, 23-670.
- Dumbrell, W. J., *Covenant and Creation*, Crownhill: Paternoster, 2013.
- Eichrodt, Walther., *The Old Testament Theology*, Vol. 1, OTL, Philadelphia: Westminster, 1967.
- Fee, Gordon D., *God's Empowering Presence: The Holy Spirit in the Letters of Paul*, Peabody: Hendrickson, 1994.
- Firth, David G., "The Presence and Leadership: Testimony, Empowerment and Purpose," *Presence, Power and Promise: The Role of the Spirit of God in the Old Testament*, eds. David G. Firth and Paul D. Wegner, Downers Grove: InterVarsity, 2011, 259-80.
- Fockner, Sven, "Re-opening the Discussion: Another Contextual Look at the Sons of God," *JSOT* 32 (2008), 435-56.
- Gentry, Peter J. and Stephen J. Wellum., *Kingdom through Covenant: A Biblical-Theological Understanding of the Covenants*, 2nd ed., Wheaton: Crossway, 2018.
- Green, J. B., "Kingdom of God/Heaven," *Dictionary of Jesus and the Gospels*, eds. J. B. Green, J. K. Brown, and Nicholas Perrin,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13, 468-81.
- Hamilton, V. P., *The Book of Genesis: Chapter 1-17*,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90.
- Hildebrandt, W., *An Old Testament Theology of the Spirit of God*, Peabody: Hendrickson, 1995.
- Hubbard, Jr., R. L. "The Spirit and Creation," *Presence, Power and Promise: The Role of the Spirit of God in the Old Testament*, eds. David G. Firth

- and Paul D. Wegner, Downers Grove: InterVarsity, 2011, 71-94.
- Lee, Jae Hyun, *Paul's Gospel in Romans: A Discourse Analysis of Rom 1:16-8:39*, LBS 3, Leiden: Brill Academic, 2010.
- Lee, Sang Mok, "Paul's Pneumatology and the Unity of Christ's Body: Cosmological and Epistemological Aspects of the Spirit." *Canon&Culture* 14 (2020), 201-34
- Keener, C. S., *The Spirit in the Gospels and Acts*, Peabody: Hendrickson, 1997.
- Moore, Erika., "Joel's Promise of the Spirit," *Presence, Power and Promise: The Role of the Spirit of God in the Old Testament*, eds. David G. Firth and Paul D. Wegner, Downers Grove: InterVarsity, 2011, 245-56.
- Osborne, G. R., *Matthew*, ZECNT, Grand Rapids: Zondervan, 2010.
- Pelt, van, W. C. Kaiser, and D. I. Bock. "רִיחַ," *NIDOTTE*, 3:1073-78.
- Philip J. Nel, "גִּלְיָהּ," *NIDOTTE*, 2:956-65.
- Sarna, Nahum M., *Genesis*, JPSTC,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89.
- Selman, M. J., "The Kingdom of God in the Old Testament." *TynB* 40 (1989), 161-83.
- Smalley, S. S., *The Revelation to John: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of the Apocalypse*,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05.
- Smith, Gary V., *Isaiah 1-39*, NAC, Nashville: Broadman & Holman, 2007.
- Stuart, Douglas K., *Exodus*, NAC, Nashville: Broadman & Holman, 2006.
- Von Rad, G., *Genesis: A Commentary*, OTL, Philadelphia: Westminster, 1972.
- Walton, John H. "The Ancient Near Eastern Background of the Spirit of the Lord in the Old Testament," *Presence, Power and Promise: The Role of the Spirit of God in the Old Testament*, eds. David G. Firth and Paul D. Wegner, Downers Grove: InterVarsity, 2011, 38-70.
- Wenham, G. J., *Genesis 1-15*, WBC, Waco: Word, 1987.

<초록>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창조와 언약의 구속사 관점에서 본 성령의 위치와 역할-

이재현

(한동대학교 조교수/교목)

본 논문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한 성령의 역할에 대한 연구다. 성령은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자 신자의 구원과 삶의 동력이지만, 교회와 성도의 신앙에서 단순히 능력과 관련해 개인적 평안 혹은 기적의 통로로 더 많이 인식되는 듯하다. 완전히 틀린 정보는 아니나, 성령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없으면, 부분을 절대시하거나 중요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불균형을 양산할 수 있다. 핵심은 성령을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 계획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창조와 이후 역사와 마지막 완성을 아우르는 큰 그림으로 제시한다. 예수의 첫 선포 내용이자 모든 가르침과 사역의 배경이다. 본 논문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 속에서 성령의 위치와 역할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 세 가지 차원에서 성령의 역할을 분석한다. 첫째는 영역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다. 흔히 하나님 나라를 통치로 이해하지만, 본 논문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통치 영역과 경계선을 가진 ‘영역’ 개념으로 볼 것을 제안한다. 둘째는 통치권자와 통치 영역과 통치 백성 요소를 가진 하나님 나라의 요소다. 특별히 통치 백성의 요소를 언약(covenant)으로 보고, 하나님 나라와 언약과의 연결을 설명한다. 셋째는 창조, 타락, 회복, 완성의 구조를 가진 하나님 나라의 시간성이다. 본 논문은 하나님 나라의 이런 요소와 성경과의 관계성을 고찰해서 창조와 새 창조, 심판과 회복, 예수의 사역과 신자의 삶 모든 차원에 관여하고 있는 성령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제공한다.

<Abstract>

**The Kingdom of God and the Holy Spirit:
An Examination of the Position and Role
of the Holy Spiri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demptive History of Creation and Covenant**

Asst. Prof. Jae Hyun Lee
(Handong University)

This study is an examination on the role of the Holy Spirit in relation to the kingdom of God. The Holy Spirit is one of the members of the Trinity and is the power behind the salvation and life of the believer. However, in the faith life of the church and the believer, the Holy Spirit is sometimes perceived solely as a power or channel for personal peace or miracles. While this understanding is not entirely incorrect, it can create an imbalance and fail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 place and role of the Holy Spirit. The key is to understand the Holy Spirit within the grand plan of God's salvation. The Bible presents the kingdom of God as a comprehensive framework that encompasses the creation, subsequent history, and final consummation.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place and role of the Holy Spirit in the concept of the kingdom of God. To achieve this, the role of the Holy Spirit will be analyzed in three aspects. The first aspect is the concept of the kingdom of God. While the kingdom is often understood as a dominion, this paper proposes to see it as a realm with boundaries that separate God's rule from that of Satan. The second one is the components of the kingdom of God, which include the ruler(s),

the reigning realm, and the people. Specifically, the element of the ruled people is dealt with in relation to the covenant, and the connection between the kingdom of God and the covenant is explained. The third aspect is the temporality of the kingdom of God, which follows a structure of creation, fall, restoration, and consummation. This paper sheds ligh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aspects of the kingdom of God and the Holy Spirit and provides a proper understanding of the Holy Spirit, who participates in the process of creation/new creation, judgment/restoration, and the ministry of Jesus and the lives of the believers.